법신도 법을 설할 줄 모른다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㉜ 삼안국토(三眼國土)

"어떤 것이 눈 세 개인 나라(三眼國土)입니까?"

임제가 말했다.

"내가 그대들과 함께 깨끗하고 미묘한 국토에 들어가서 깨끗한 옷을 입고 법신불을 설하며, 또 차별 없는 국토에 들어가 차별 없는 옷을 입고 보신불을 설하며, 또 해탈국토에 들어가 광명의 옷을 입고 화신불을 설하니 이 눈 세 개인 나라는 모두 행동을 의지해 변화된 것일 뿐이다. 경론가들은 법신을 취해 근본을 삼고 보신과 화신을 법신의 작용이라 하나 산승의 견해로는 법신도 법을 설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하기를 '법성신은 뜻을 의지해 세운 것이요 법성토는 법성의 본체에 의지해 말한 것이다' 하니 법성신과 법성토는 만들어 세운 몸이고 만들어 세운 국토인 줄 분명히 알아야 하느니라. 빈주먹에 노란 잎을 쥐고 금이라고 어린아이를 속이는 것이니라. 남가새나 마름의 바싹 마른 뼈다귀에서 무슨 국물을 찾는단 말인가? 마음 밖에 법이 없고 마음 안에도 없으니 무엇을 찾는다는 말인가?"

눈이 세 개인 나라(三眼國土)는 원래 〈화엄경〉에 나오는 말이다. '입법계품'에 선재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 남행할 때 11번째 만난 선견비구가 머물던 곳이 삼안국토이다. 삼안은 법안(法眼), 지안(智眼), 혜안(慧眼)으로 선지식이 갖추는 세 개의 눈이다.

'눈 세 개인 나라(三眼國土)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답한 임제의 말을 보면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불을 설하는 곳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선의 질문(禪問)에는 답이 없다. 말로 하는 것은 답이 되지 못한다. 언어의 개념이나 논리로 선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제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조주(趙州)의 무(無)자 화두가 나타난 배경은 이렇다.

어떤 스님이 조주를 찾아와 질문을 하려 할 때 마침 마당에 개가 한 마리 지나가고 있었다. 찾아왔던 스님이 이것을 보고 다짜고짜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에 조주 선사가 "없다"고 답을 했다. 그런데 개가 불성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열반경〉에 "모든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一切衆生悉有佛性)"고 하였다. 개도 중생인데 어째서 불성이 없는가? 이러한 논리로 대응하면 개가 불성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그러나 선문답(禪問答)은 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말의 격식이 없어 격외담(格外談)이라 한다. 굳이 말하자면 말로써 충격을 주어서 선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는 방편을 쓰는 것이다.

임제는 교가의 견해를 가지고 선가의 참뜻을 알려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부처님의 본체인 법신도 법을 설할 줄 모른다고 했다.

〈벽암록〉 제1칙에 양나라 무제가 달마를 만나 나눈 짧은 대화가 소개되어 있다.

무제가 물었다.

"어떤 것이 가장 성스러운 진리입니까?(如何是聖諦第一義)"

달마가 답했다.

"텅 비어 성스럽다 할 것도 없습니다.(廓然無聖)"

무제가 물었다.

"나를 대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입니까?(對朕者誰)"

달마가 말했다.

"모릅니다.(不識)"

흔히 말하기를 도를 알기 전에는 몰라서 모르고 도를 알고 난 후에는 말을 할 수 없어 모른다 한다. 이때 달마가 한 '모른다'는 나중에 달마불식(達摩不識)이라는 공안(公案)이 되었다 한다.

선가(禪家)에서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견해는 교가(敎家)의 견해라 치부하고 도(道)나 선(禪)에 들려면 지식의 세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이른바 사교입선(捨敎入禪)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온 것이다. 지식 과욕시대는 자칫 진리에 대한 체험은 없이 언어의 유희만 범람하고 사견을 조장하는 폐단이 많아, 안으로 얻는 수행의 체험이나 공부의 내공(內工)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혜는 제법의 체계적인 관조

〈諸法〉 〈觀照〉



세상 속 경전읽기

㉜ 오온개공(五蘊皆空)

제법(諸法 · dharma)은 '우주에 있는 유 · 무형의 모든 현상과 사물'을 말한다. 우리는 제법을 나와 동일시하는 오랜 습관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나'와 '나의 것'이라는 용어와 결부해왔다. 제법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반야지(般若智)이다.

불교도에게 '지혜[반야(般若)]'는 '제법(諸法)'의 체계적인 관조(觀照)이다. 이는 붓다고사(Buddhaghosa)의 공식적이고 학술적인 용어 정의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지혜는 제법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특성이 있다. 그것은 제법의 본성을 뒤덮은 무명의 어둠을 부수는 기능이 있다. 지혜는 아견[我見, 내가 있다는 견해]이라는 미망(迷妄)을 벗어난 상태이다. '선정에 든 이는 실제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볼 줄 안다'고 경전에 쓰여 있다. 선정으로 인해 지혜(반야)가 드러난다." 〈Edward Conze의 Buddihsm Its Essence and Development p105에서 번역〉

아비달마 논서에서는 '나'와 '나의 것'이라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고, 무아적[無我的, 비개아적(非個我的)]인 제법들만의 상호작용으로, 우리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구축한 것이 큰 장점이다. 제법의 체계를 적용할 때 '나'는 오온[五蘊, 色受想行識]의 다섯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자신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자신이 기대고 있는 모든 것은 이 오온 중의 어딘가에 속한다. '나[개아(個我)]'가 존재한다는 잘못된 믿음은, 오온 위에 '나(자신)'라는 가아(假我)를 지어냄으로써 일어난다. 우리의 실제 경험에 가아가 끼어드는 것이다.

치통(齒痛)의 예를 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에게 치통이 있다"라고 말한다. 이는 무아를 모르는 세속의 문법으로 말한 것이다. 제법 속에는 '나'도 '치통'도 '있다'도 들어있지 않다. 아비달마에서는 '개아에 관련된' 표현들이 '개아에 관련되지 않은' 표현들로 대치된다. 우리들 문법으로 '나에게 치통이 있다'라는 표현은 제법의 체계에서 비개아적 문법으로는 "1) 여기 물질[色]로서 치아라는 형체가 있다. 2) 고통스러운 '느낌[受]'이 있다. 3) 치아를 보고, 만지고, 괴롭다고 느끼는 '지각[想]'이 있다. 4) '의지적 반응[行]'의 형태로, 고통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바람' 등이 있다. 5) 이 모든 것을 알아채는 '의식[識]'이 있다."고 오온으로 분석된다.

제법을 오온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더 자세히 나눌 수도 있다.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에서는 5위75법(五位七十五法), 유식학파(唯識學派)에서는 5위100법(五位百法) 등으로, 제법을 다섯 가지 큰 범주에 75가지나 100가지의 작은 범주로 나누었다. 유위법[有爲法 · 인연생멸에 따른 법] 4종과, 무위법[無爲法 · 인연생멸을 여읜 법] 1종을 합해 5위라고 하고, 유위법 4종은 심법[心法 · 마음], 심소유법[心所有法 · 마음의 부수(附隨)작용], 색법[色法 · 물질],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 · 감각되지도 않고 마음과 함께 일어나지도 않는 것. 이를테면, 현상들 사이의 관계, 작용, 성질, 세력, 명칭 등]이다.

가아(假我)도 실제 경험의 일부라고 항변한다면, 가아는 식온(識蘊)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심소유법 아래 근본번뇌[根本煩惱 · 貪, 瞋, 痴, 慢, 疑, 惡見] 중의 악견[惡見 · 身見, 邊見, 見取見, 戒禁取見, 邪見] 중의 하나인 신견[身見 · 자아가 있다는 그릇된 믿음]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다.

〈반야심경〉의 '오온개공(五蘊皆空)'은 곧 제법개공(諸法皆空)으로서, 오온이 가화합한 '나'도 없는 무아(無我)일 뿐 아니라 '나'나 우주를 구성한 요소들인 제법도 모두 공(空)하다는 아공법공(我空法空)의 도리이고, 이를 실제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것이 반야지이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㉘ 닦음의 길 18

묵조, 조용히 관조할 뿐

〈默照〉

어떤 이는 스펙터클한 액션영화를 좋아하지만, 반대로 조용한 느낌의 영화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외향적인 사람에게는 지루하게 보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묘한 감동과 재미로 다가오는 것이다. 음악도 에너지 넘치는 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한 느낌의 뉴에이지를 즐겨 듣는 이도 있다. 어떤 이는 시원시원하게 말하지만,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거나 침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불교의 수행체계도 마찬가지다. 간화선과 같이 직접적이고 거침없는 스타일의 수행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묵조선(默照禪)과 같이 묵언(默言)을 중시하며 좌선을 통해 나와 세계를 관조하는 고요한 수행도 있다. 위장이 튼튼한 사람이야 무슨 음식이든 빨리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천천히 씹으면서 먹는 것이 좋다. 불교의 수행 역시 개인의 성향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실천하면 되는 일이다. 나와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그저 난센스에 불과하다.

묵조선은 조동종(曹洞宗)의 10대 조사인 굉지 정각(宏智 正覺, 1091~1157)이 주창한 수행체계다. 당시 간화선 중심의 분위기에서 〈묵조명(默照銘)〉을 지어 조동종의 고요한 스타일의 수행법을 강조한 인물이다. 천동산(天童山)에 오래 머물면서 활동했기 때문에 흔히 천동화상이라 불렸다. 그는 〈묵조명〉에서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말을 잊으면(默默忘言) 존재의 참 모습이 눈앞에 밝게 드러난다(昭昭現前)"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의 요체는 모든 것을 쉬고 조용히 앉아있는 데 있다. 지관타좌(只管打坐)라는 말로 대표되는 묵조선은 그저 온갖 잡념을 잊은 채 오로지 일념으로 좌선하는 스타일이다.

어찌 보면 매우 고요하면서 단순한 수행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쉬기만 하면 중생에서 부처로 질적 전환을 할 수 있을까? 그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청정하면서도 밝은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면서 뚜렷이 밝은 신령스러운 바탕이지만, 평소에는 온갖 번뇌, 망상으로 가려져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 덩어리인 몸과 마음을 쉬기만 하면 본래의 바탕으로 돌아가서 존재의 참 모습이 환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수행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침묵(默)한 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좌선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존재의 실상을 환히 밝히는(照) 지혜가 저절로 작동하게 된다. 견성(見性)이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조용히 수행할 때 찾아오는 선물이다. 묵조선에서는 특별히 화두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표의식도 필요 없다. 오히려 뭔가를 구하려는 바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조용히 관조할 뿐이다.

묵조선을 이 땅에 처음으로 소개한 인물은 구산선문(九山禪門) 가운데 수미산문(須彌山門)을 연 이엄 진철(利嚴 眞澈 · 870~936)이다. 조동종의 맥은 조선 중기까지 이어졌는데,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一然 · 1206~1289)이나 매월당 김시습(金時習 · 1435~1493) 등이 그 전통을 지킨 인물들이다. 그 후 조동종의 자취는 사라졌지만, 오늘날 전통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굉지와 동시대를 살았던 대혜는 묵조선을 강한 어조를 비판하였다. '검은 산의 귀신 굴(黑山鬼窟)'로 빠지게 하는 수행이거나 아니면 '고목이나 불 꺼진 재(枯木死灰)'처럼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비아냥도 난무했다. 조용히 좌선만 하게 되면 무기(無記), 즉 수행할 때 생기는 멍한 상태에 빠져 결코 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영향 때문에 간화선 중심의 한국불교에서 묵조선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대개 잔잔하고 조용한 영화를 보면 조는 경우가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면서 감상하는 사람도 있다. 묵조선을 한다고 해서 모두 무기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자체를 틀렸다고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사람들의 다양한 근기에 맞는 대기설법(對機說法)을 강조했던 붓다의 정신과도 맞지 않는 일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